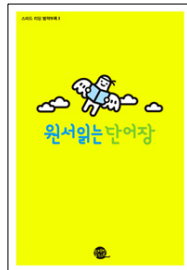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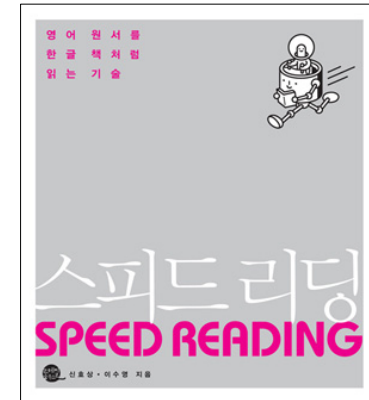


스피드 리딩 - 영어 원서를 한글 책처럼 읽는 기술

「스피드 리딩」은

'어떤 원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하는 원서읽기의 기본 사항부터,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법, 'Harry Potter' 원서를 이용해 원서 읽기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원서 읽기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영어 학습서입니다.

영어 원서를 읽기 위한 세 가지 원칙과,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 그리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영어 원서를 읽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 1700개를 정리한 「원서 읽는 단어장」 과 Harry Potter 1권에 나오는 영단어를 챕터별로 정리한 「Harry Potter 단어장」 이 함께 제공 됩니다.

이 파일은 책의 1장과 3장의 내용을 담은 파일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본 책은 각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CHAPTER 1

영어 되돌아보기





우리는 누구나 영어를 잘하길 원한다. 영어만 잘하면 취직이 잘 될 거야. 영어만 잘하면 더 좋은 직장이 생길걸. 영어만 잘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오늘도 부푼 희망을 품고 영어에 매달린다.

그러나 영어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영어 학원, 영어 책, 어학연수 등등 영어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투자에 대한 대가는 지극히 미미할 뿐이다. 토익 점수는 점점 상향평준화되어가고 외국인 앞에서조차 제법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은 게 뭘까? 외국인 친구?

영어는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도 잘하기 힘들뿐더러, 잘한다 해도 크게 남는 게 없다. 열심히 해도 영어는 항상 부족한 것

한국인의 영어 투자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10년간 약 1만 5,548시간이며, 전체 투자비용은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영어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보길 바란다.

당신 인생에서 그만큼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던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 투자의 결과가 초라했던 일이 있는가?

같고 그렇다고 막상 어떻게 해야 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무언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아직 영어를 못 해서 그렇지 영어 실력만 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영어에 매달리고 본다.

잠깐 멈추고 되돌아보자. 무작정 영어에 매달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잠시 생각해보자.

Test 영어의 시대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토익과 토플 같은 영어 Test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단어만 외우고, 시험에 나오는 문법만 공부하고, 시험에 나오는 듣기만 듣고, 시험에 나오는 글만 읽는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어 공부란 곧 토익 공부를 의미한다.

언제부터 이런 Test 영어가 대세가 된 걸까?

1970, 80년대만 해도 영어는 '해외 유학'이라는 큰 꿈을 가진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다. 당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듣기, 말하기 위주의 학습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주로 문법과 읽기를 통해 영어 학습이 이루어졌다. 토익이나 토플 역시 응시자가 극히 적었다.

90년대 이후,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영어는 이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다. 기업들은 취업, 승진을 위해 토익 점수를 요구했고 자연스럽게 응시자가 급증했다. 토익은 점점 일반화됐고 많은 영어 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됐다.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우리는 더 높은 점수를 원했고 온갖 비법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탄탄한 영어 실력 없이도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십 년 전만 해도 토익 900점대는 '신의 점수'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받는 점수가 됐다.

2006년 토익 응시자 수 180만. Test 영어는 여전히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끝장날 것으로 보인다.

토익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토익 고득점이 곧 탄탄한 영어 실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안다. 기업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 따라서 점차 많은 기업들이 입사원서에 토익 점수 기입란을 없애버리거나 그 반영 비율을 줄이고 있다. 그 대신 영어 면접이나 영어 토론 같은 영어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방식을 따로 채택하고 있다.

요즘 기업들의 영어 시험

다음 영문 보고서를 20분 이내로 읽고 그 내용을 A4 한 장으로 요약하시오.
'백킨지에서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읽고 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3분 이내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토익 준비만으로 이런 영어가 가능할까?

영어 Test로는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 힘들어져버린 탓에, Test 영어는 그 근본적인 힘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 공부의 수단으로 토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토익 그 이후, 그 이상을 대비해야만 한다.

영어 학습자인 우리들 입장에선 정말 미칠 노릇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토익을 위해 도서관에 앉아 있는 대학생이 수만 명이다. 술자리 피해 도망 다니며 공부하는 직장인들도 수만 명이다. 그렇게 공부해도 토익 고득점? 그거 절대 쉽지만은 않다.

토익 점수가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갈수록 토익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토익 점수마저도 없으면 인간 구실도 못한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계속 Test 영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젠 토익만으론 부족하고 그 이상을 해야 한다니, 이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시대의 요구는 가혹하기만 하다.

Speaking의 시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Spoken English, 즉 듣기·말하기를 이용한 방식이다.

15~20년 전만 해도 '문법 중심'의 Test 영어가 기세등등한 시절이었다. 외국인도 주변에 거의 없었고 외국에 나가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문법 중심의 영어가 영어를 공부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점차 시대와 사회가 변해 주변에 외국인도 늘어나고, 어학기 같은 다양한 수단도 생기면서 문법 중심의 영어는 설 자리를 잃는다. 문법만으론 외국인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주장했다.

말하지 못하는 영어는 죽은 영어대!

무엇보다 발음이 중요하다!

영어는 원어민에게 제대로 배워야 한다!

바야흐로 Speaking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Test 중심 영어가 책상 앞에서 혼자 하는 영어였다면 Speaking 중심의 영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어였다. 외국인 앞에서 유창하게 영어를 내뱉으면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효과는

탁월해 보였다. 영어 Test들에 듣기의 비중이 높아졌고 영어 회화 학원들이 급증했으며, 듣기를 이용한 학습을 주창한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소리를 이용한 영어의 핵심은 '영어에 노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사람들은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 돈을 퍼붓기 시작했다.

영어회화는 기본이고 1~2년의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은 필수 코스가 됐다. 너나할것없이 필리핀,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으로 떠났고, 이제 영어를 쓰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한국 사람들로 넘쳐난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강사들로 넘쳐난다. 외국인 강사들에겐 보수 좋은 한국이 천국이다.

한편 정점에 다다른 Speaking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고수 집단이 있으니, 바로 조기 영어 교육과 조기 유학으로 무장된 세대들이다. 유창한 영어. 원어민급 발음. 대기업 임원들도 토종 박사들도 외국에서 5년 정도 살다 온 아이 앞에선 한없이 초라해진다. 그들은 영어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영어 기본 세대' 인 것이다.

베테랑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하나같이 '요즘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영어의 레벨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진짜 레벨이 다른 '영어 기본 세대' 들은 아직 직장생활을 시작도 안했다. 이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향후 5~7년 내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영어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까?

영어 학습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억울하다. 치고 올라오는 이 세대들보다 Speaking 실력이 떨어지는 건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지 어려서 외국에 나가 살면서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래도 새벽에 눈 비비며 회화 학원 다닌 게 몇 년인데, 살다 와서 잘하는 세대들 앞에 왜 한없이 초라해져야만 하는 걸까? 단지 기회와 환경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 아닌가?

하지만 억울해도 그들보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 그리고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난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은 잔인하기만 하다.



초·중·고 조기유학생은 2002년 기준으로 그 숫자가 1만 명이 넘었고 현재도 매일 56명 꼴로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 게다가 이 숫자는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이나 이민을 제외한 것으로,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연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들이 유학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취업 시장에 진출할 때, 당신의 영어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까지의 영어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정말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열심히 하던 토익은 힘을 잃어가고 기업들은 전에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갈고 닦은 영어도 치고 올라오는 세대들 앞에서는 초라할 뿐이다. 여전히 우리 영어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왜 그런 걸까?

그건 **우리의 영어 수준**과, 영어에 대한 **사회의 요구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일단 우리의 수준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한국에서 나고 성장한 성인이라면 대체로 다 음과 같은 단계 중에 있을 것이다.

1단계 : 시험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 시험, 대입 이후 토익·토플. 영어는 시작부터 무수한 시험들을 거쳐야 한다. 이 단계는 문법과 단순 암기 위주의 영어 단계로 특히 40대 이상 성인들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2단계 : 소리 영어

대학생 이후 토익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영어 시험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면 다른 방식의 영어 공부를 도모하기 시작한다. 영어회화나 어학연수, 팝송 듣기, 영어 시트콤 보기, CNN 청취 등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로 '소리'를 통한 공부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과 간단한 회화를 나누고 영어로 된 단문 정도는 읽을 수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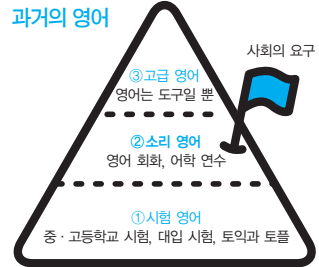
만일 당신이 ②단계에 도달했다면, 영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축에 속한다. 그리고 보통 성인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된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에 쫓기다보면,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절실하지 않은 영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3단계 : 고급 영어

그러나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거나 해외 유학을 준비중인 사람들같이 영어가 절실한 소수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흔히 말하는 고급 영어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로 영어를 구사한다. 영어를 할 줄 아는 건 기본이고, 외국 저널을 읽고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는 데 한글 쓰듯이 그냥 영어를 쓰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로 영어를 구사하는 건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성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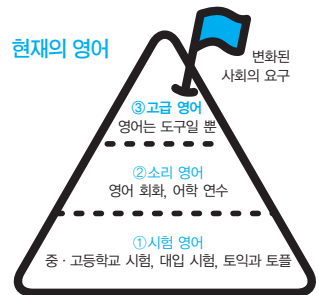
의 꿈이자 로망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건이 되는 소수만 가능한 수준이었고, 사실 보통은 이 정도까지 영어를 구사할 필요도 없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그간 사회의 요구는 ②단계 정도였다. 기업은 토익과 간단한 회화 정도를 요구했고 적정 수준에만 도달하면 영어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우리의 영어 수준도 대부분 ②단계 정도였다. 영어야 잘하면 좋지만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토익이나 영어회화 이상을 원한다. 영어 토론과 영어 프레젠테이션, 심하면 영어 논문 작성까지 요구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전공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강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강의에서는 수업 진행, 과제 제출, 발표 모두를 영어로만 해야 한다.



갑자기 전에 없는 요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영어에 대한 '사회의 요구 수준'이 돌변한 것이다.**

이전에는 소수만이 도달했던 ③단계 수준,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를 이용해 '그 이상의 뭔가' 까지 해내는 수준을 사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영어

왜 이렇게 영어에 대한 사회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 걸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_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고급 노동력의 유입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 고급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들과 함께 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영어는 기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영어로 토론하고 설득하며, 같은 영어 저널을 읽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즉, 시대의 흐름이 사회에 더 많은 영어를 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

'영어 기본 세대'의 등장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한 세대들이 취업 시장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원어민처럼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이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는 자량이 아닌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능력일 뿐이다.

즉, 이미 시대적 조건도 수준 높은 영어를 수용할 단계에 접어

세계화, 그리고 영어

2007년, 미국과의 FTA가 체결됐다. 전문가들은 FTA의 여파로 향후 10년 내, 국내 직업의 90퍼센트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화는, 이미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영어 기본 세대'가 아닌, 바로 우리 20대 이상 성인들이다.

지금 우리의 영어는 어떤가? 지금 당신의 영어는 어떤가?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사회의 영어 능력 요구에 발맞추어나갈 수 있는가?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제 전문 원서와 해외 저널을 읽고 활용하는 고급 영어가 필요하다고.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에는 여전히 Test 영어와 Speaking 영어,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이다.

영어 Test나 Speaking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다. 열심히 해왔다면 정말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Test 점수도 어느 정도 받았고 회화도 어느 정도 하게 됐다. 그래도 계속 하던 걸 반복하면 고급 영어가 가능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영어로 가야 한다. 이제 영어만을 위한 영어 공부로는 한계가 왔다. 시대가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

여기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영어 원서를 읽고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것은, **스피드 리딩**이다.

더 나은 영어를 위한 대안, 스피드 리딩

스피드 리딩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의 영어 원서를

1분에 150단어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영어 원서 읽기**다.

하지만 사전 부여잡고 하루에 한 페이지를 겨우 읽는 영어 독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 고급 영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 원서 읽기라는 것은 다들 알면서도 많이 시도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느려터진 '독해' 때문이었다. 대개 원서를 독해하는 건 시간만 잡아먹고 효과도 없다.

스피드 리딩은 원서 읽기지만, 차원이 다른 읽기다.

영어 원서를 한글 책처럼 부담 없이 읽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권, 빠르면 하루에 한 권까지 읽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스피드' 리딩, 영어 원서 속독이다.

스피드 리딩은 어렵지 않다. 당신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20대 이상 성인이라면,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이미 충분하다.** 그간 해왔던 영어를 기초로 스피드 리딩의 원칙들만 숙지하면 영어 원서를 한글 책처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된다.

스피드 리딩을 익힌 후 자신이 공부했던 전공, 당장 업무에 필요한 내용, 평소 읽고 싶었던 소설 등을 영어 원서로 빠르게 읽는 것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무언가'를 공부하는데 단지 그 무엇이 영어로 쓰여 있을 뿐이다.

두꺼운 단어장을 외우면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원서를 읽으며 필요한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활용하지도 않는 표현들을 마냥 암기하지 않는다. 평소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들을 원서로 다시 보면, 암기하기 싫어도 저절로 기억된다. 영어를 읽고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급 영어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영어'로 배우는 것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사실 이 아이디어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우리 주변의 영어 고수들은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고수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법이다. 우리의 능숙한 한국어 실력도 이 방법으로 생겨났다.

학교에 가서 사회나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한글은 어려서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이용해 다른 과목들을 공부한다.

하지만 사회를 관찰하고 과학을 탐구하면서 점점 수준 있는 말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글 어휘력이나 표현력도 함께 발달한다. 한글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한글 실력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 대해선 어떨까?

5살 꼬마부터 40살 아저씨까지 '영어를 공부' 한다. 영어 시험도 봤고 회화도 조금 하는데, 아직도 영어를 공부한다. 사회를 관찰하고 과학을 탐구하면서 한글을 익혔지만, 영어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며 아직도 영어를 공부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어 공부만으론 영어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 영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틀린 문법 찾거나 발음 연습은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했다. 그런데도 영어만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다. 이제 영어 그 이상을 위해, 당신의 전문 지식이

상상해보자

일주일엔 한 권씩, 원서를 거침없이 읽는다고 상상해보자. 지난 주말 읽은 원서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이번주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어제 읽은 재밌는 원서의 내용을 오늘 저녁 데이트에 농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영어를 진짜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업무와 영어, 생활과 영어의 괴리가 무너진다.

나 업무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 원서로 읽으면서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영어만을 위한 영어가 아닌, '도구'로서의 진짜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영어 원서 읽기, 정말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

영어 원서 읽기는 누구나 추천하는 영어 공부 방법이잖아.

하지만 내 수준으로 원서 읽기를 어떻게 해?

더구나 '속독'이라고? 영어를?

내가 무슨 영어 고수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이해한다. 불과 3년 전까지는,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스피드 리딩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아주 평범한 영어학습자였을 뿐이었고, 영어 원서 읽기는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었다.

원서 읽기?

언젠가 영어 잘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가능하겠지.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스피드 리딩을 접하고부터였다. 인터넷 카페에 '분당천단어'라는 필명으로 이 책의 공동 필자인 신호상 선생이 쓴 글이었는데 '평범한 영어 학습자도 원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내용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타당해 보였다.

당시 이 글에 열광한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처음 이 글이 인터넷에 올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성인들의 영어를 구해줄 최고의 방법이라 극찬했고, 몇몇 일간지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글을 쓴 신호상 선생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자신의 이론을 현실로 확인시켜줄 사람들을 찾아 묵묵히 가르치고 있었다.

'나도 원서 읽기가 가능할까?' 인터넷에 오른 글들을 모두 읽고 나서 든 생각이었다. '수능 시험을 본 이후로 영어는 공부한 적도 없는데, 영어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나도 원서 읽기가 될까?'

자신감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시도해봤다. 어차피 원서 한 권 사는 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원서 읽기가 안 된다고 뭐 하나 잃을 건 없었으니까. 신호상 선생의 세미나를 청강하기도 하

고, 친구들과 원서 읽기 모임을 만들기도 하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깨달을 수 있었다.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원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이미 웬만한 원서는 무난히 읽을 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아직 영어에 초보자지만, 원서 읽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책을 집어 들었을지도 모른다.

외국인 앞에서는 덜덜 떨리고, 토익 앞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영어학습자인가? 그럼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나 역시도 그랬다. 스피드 리딩을 배워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랬다. 우리는 모두 보통 영어학습자였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원칙과 방법들에 따라 스피드 리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또 그렇게 배운 스피드 리딩으로 매일 원서를 읽으며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제부터 스피드 리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이 책의 내용을 잘 읽어보

고 또 여러분의 영어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역시 영어 원서를 한글 책처럼 읽는 스피드 리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지금 성인들의 영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영어 기본 세대' 들은치고 올라온다. 글로벌 경쟁으로 영어는 더욱 중요해진다. 하지만, 막상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평일은 업무 처리하기도 빠듯하고 주말은 지친 몸을 달래기도 부족하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 기존 영어 교육 환경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억울하면 너도 유학 가시든지' 정도였다.

그러나 여기 대안이 있다. Test 영어나 Speaking 말고도, 억울해서 떠나는 유학 말고도, 제3의 길이 있다. 한글 책 읽듯이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영어에 계속 노출되고, 읽은 내용을 생활 속에 그대로 활용할 길이 있다. 영어만을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닌, 그 이상의 '더 나은 영어'를 위한 대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스피드 리딩'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말한다. '영어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계발서 읽기도 바쁜데.....'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 자기계발서, 영어 원서로 스피드 리딩하세요.' 생활과 영어, 업무와 영어는 서로 떨어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스피드 리딩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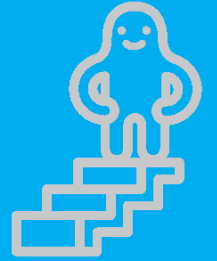
이 책의 모든 내용과 주장들은 '그럴 것이다' 혹은 '나는 그랬다'는 식의 모호한 것들이 아니다. 이 책은 원서 읽기에 대해서 10년간 한결같이 공부한 신호상 선생의 연구 결과물이자, 이후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한 결과물이다.

스피드 리딩의 과학적 원리, 수백 명을 가르쳤던 데이터, 그리고 처음 스피드 리딩을 배웠던 초보자로서의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책이며, 이제 그 내용을 펼쳐 보이려 한다.



CHAPTER 3

스피드 리딩의 기본 원칙





사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원서 읽기를 시도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한 권이라도 끝까지 완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원서 읽기는 참을성 많고 영어 잘하는 몇몇 사람들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원서 읽기는 전혀 어렵지 않다. 오히려 한글 책을 읽기처럼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한글 책을 분당 150단어 이상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영어 원서도 그렇게 읽을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영어 원서 읽기가 안 된다면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억눌린 잠재력을 풀어주는 것이 원서를 한글 책처럼 읽는 기술의 시작이다.

3장에서는 스피드 리딩의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서 읽으면 영어 고수?

초등학교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원서를 읽는다. 서울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2퍼센트의 어린이가 영어 원서를 읽는다고 답했다. 74퍼센트의 어린이는 한 달에 2권 이상 읽고 있으며, 4권 이상이라고 밝힌 어린이도 26퍼센트나 됐다. (소년한국일보 기사)

아직도 원서 읽기가 영어 고수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영어 원서 읽기는 한글 책 읽기와 같다

‘영어 원서 읽기와 한글 책 읽기는 같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영어 원서 읽기는 한글 책 읽기와 같다. 이것이 스피드 리딩의 기본 원리이며, 스피드 리딩을 위한 모든 훈련들은 이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그럼 도대체 원서 읽기와 한글 독서가 뭐가 같다는 걸까? 그건 바로 ‘읽고 이해하는 두뇌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읽기’는 단어와 문장들 속에 압축되어 있는 저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일종의 이미지 해독 게임이다. 영어 원서와 한글 책의 차이는, 저자의 생각을 압축시킨 수단이 한글이나 영어냐일 뿐이다. 글을 통해 저자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똑같이 구현해내는 두뇌 작용이라는 점에서, 원서 리딩과 한글 독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이다.

만일 여러분이 한글을 분당 150단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언어 정보를 분당 150단어로 처리하는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두뇌는 영어로 된 언어 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그대로 이용된다.

즉, 한글이든 영어든 ‘글자에서 뜻을 인지해’ 내는 것은 동일한 두뇌 프로세스이며, 따라서 그 처리속도 또한 한글과 영어에서 같

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국어인 한글로 읽는 속도가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속도가 된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평균 한글 독서 속도는 분당 150~200단어 정도이다. 여러분이 한글 책을 분당 150단어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면, 원서도 그렇게 읽을 잠재력을 이미 두뇌 속에 가지고 있다.

원서 속독이 안 되는 이유

하지만 잠재력만 믿고 시도하기엔 원서 읽기는 여전히 꿈같은 일이다. 이미 잠재력이 있다는데, 도대체 원서 읽기는 왜 안 되는 걸까?

그것은 잠재된 리딩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영어 원서 읽기를 방해하는 세 가지 문제

1. 모국어 수준 어휘력의 부족(단어 자체의 이해 불능)
2. 한글과 영어의 생각을 조립하는 방식 차이(단어의 조립 불능)
3. 관습적 영상의 부족(조립된 단어의 이해 불능)



한글 책 읽기와 원서 읽기는 같은 두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원서 리딩에도 유리하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영어를 읽고 뜻을 인지해내는 과정에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리딩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어 원서를 한글 책처럼 읽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또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곧 스피드 리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일단 각각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1. 모국어 수준 어휘력의 부족(단어 자체의 이해 불능)

우리는 한글 어휘를 보면 그 어휘의 뜻과 이미지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다.



하지만 영어 어휘를 보면 이미지가 빠르게 떠오르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해당 어휘에 대응하는 한글 뜻만 떠올리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어휘를 파악해서는 영어의 의미 파악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영단어를 보고도 한글 단어처럼 뜻과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야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 어휘를 익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rose 같은 쉬운 어휘 외에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들도 바로 뜻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익힌 단어가 1만 단어 이상이어야 사전 없이 원서를 읽을 수 있다.

2. 한글과 영어의 생각을 조립하는 방식 차이(단어의 조립 불능)

어휘와 어휘가 결합해 문장, 문단이 되면서 더 크고 복잡한 뜻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글과 영어는 어휘를 조립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글은 ‘은, 는, 이, 가, 을, 를, 에게’ 같은 조사를 이용해 단어를 조립하는, ‘조사중심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언어이다. 하지만 영어는 어순이 조사를 대신하고, 단어의 위치와 순서로 단어들을 결합시키는 ‘어순중심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언어다.

따라서 어휘력이 아무리 좋아도 ‘조사중심의 한글 사고방식’으로 영어를 파악하려고 하면 영어 문장은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로 보일 뿐 뜻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또 이리저리 문장을 분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체된다.

따라서 영어를 읽을 땐 영어에 맞는 방법으로 어휘들을 조립해야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관습적 영상의 부족(조립된 단어의 이해 불능)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이미지를 ‘관습적 영상’이라고



어휘력은 원서 읽기의 기본 요소이다. 어휘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원서 읽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중·고등학교 수준 기본 어휘만 완벽히 갖추고 있다면, 원서 읽기에는 충분한 어휘력이다. 나머지는 원서를 읽으면서 채워나가면 된다.

번역 프로그램의 한계

번역 프로그램을 써봤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번역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글 뜻을 일대일로 찾아준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 변환한다고 전체 뜻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번역 프로그램을 쓰면 한글로 변환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단어의 뜻은 일대일로 알고 있어도 단어들을 조립하지 못하면, 원서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부른다. 관습적 영상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배경지식** (schema)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쓴이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일일이 늘어놓지 않는다. 독자가 아는 내용들까지 설명하면 글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독자의 관습적 영상을 감안하여 압축하고 생략하며 글을 쓴다. 따라서 독자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 글쓴이와 관습적 영상을 공유하고 글에 드러내지 않은 생략된 정보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글로 된 법원 판결문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어려운 법원 판결문을 읽고 뜻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다고 한글과 단어들을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글은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만, 글에 드러나지 않고 함축된 내용과 배경지식, 즉 '관습적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관습적 영상이 부족한 분야의 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읽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영어 원서에 대해서만은 누구도 관습적 영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원서를 읽고 이해가 안 가면 '영어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영어 실력만을 탓할 뿐이었다. 그러나 원서

가 이해가 안 된다고 영어 실력을 탓하는 것은, 어려운 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 실력을 탓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원서를 읽기 전에 그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관습적 영상이 충분한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스피드 리딩, 나도 가능할까?

앞서 정규 교육을 마친 2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스피드 리딩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

이 책에서 설정한 스피드 리딩의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20대 이상 성인으로
- 한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 꾸준히 한글 독서를 해왔으며
- 영어 공부는 3~4년 이상 경력으로
-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 영단어를 암기하고 있고
- 토익 5~600점, 분당 약 50~80단어의 리딩 속도를 가진 사람

위와 같은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원서 읽기를 방해하는 세 가



20대 이상을 기본 대상으로 삼았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피드 리딩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기본 어휘력만 확실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스피드 리딩은 가능하다.

지 문제 중,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이미 암기한
고교 수준 기본 어휘를 통해 리딩에 필요한 어휘를 확장할 수 있
고(어휘력 문제 해결), 한글 독서를 통해 글에 대한 이해력과 두뇌
조건도 갖추고 있다(관습적 영상 문제 해결).

따라서 나머지 요소인 '한글과 영어의 생각을 조립하는 방식 차
이' 만 해결한다면 원서 읽기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영어를
조립하는 문제는 약 100시간, 2,000페이지의 '이미지 리딩' 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다.(이미지 리딩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정규 교육을 마친 20대 이상 성인이 스피드 리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성인들은 이미 축적해둔 공부
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된 공부량을 활용해서 영
어를 조립하는 훈련에만 집중하면, 분당 150단어의 리딩 속도에
무난히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문법에 약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스피드 리
딩이 가능할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3~4년 이상 꾸준히 영어 공
부를 해온 사람이라면 분당 150단어의 리딩 속도는 누구에게나
약속된 잠재적 속도이다. 이 잠재된 속도를 억누르고 있던 장애물
만 정확히 알고 제거한다면, 원서 리딩 속도는 자연히 빨라진다.



다시 말해서 분당 150단어의 스피드 리
딩, 원서를 한글 책처럼 부담 없이 읽는
기술은 없던 능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존재했지만 억눌
려서 알지 못했던 능력을 자연스럽게 풀
어주는 것뿐이다.

스피드 리딩을 방해하는 세 가지 영어 습관

분당 150단어가 우리에게 잠재된 속도지만 '기존 공부 방식' 으
른 잠재력이 발휘되기 힘들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 영어 습
관들 때문에 이 잠재력이 억눌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피드 리딩을 방해하는 이런 습관들을 면밀히 돌
아보자.

습관 1: 영어를 한글로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이중번역 습관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은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이중번역 습
관**이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주어/동사로 나
누고 관계대명사/절을 분해하며 하나씩 한글로 번역한다.

이런 이중번역 습관은 '영어→한글→뜻' 세 단계를 거치기 때
문에 이로 인해 리딩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힘도 많이 든다. 더욱
이 문장이 길어지기까지 하면 일일이 분석해 뜻을 파악하는 건 사
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한글로 직역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무
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 일쑤다.

이중번역 습관은 원서 속독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가 한글 독
서를 할 때, '한글→뜻' 두 단계밖에 거치지 않는다. 영어도 마찬
가지로 '영어→뜻' 두 단계를 거쳐야만 한글 책처럼 원서를 읽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영어→뜻' 두 단계만 거치면서 영어를 읽을 수 있을까? 다음 장의 How to Read의 원칙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습관 2: 읽을 가치가 없는 토막글 중심의 읽기

스피드 리딩을 방해하는 또 다른 습관은 읽을 가치가 없는 토막글 중심의 읽기 습관이다.

그간 우리가 읽는 영문이라 봐야 시험을 위한 단문 정도였다. 좀 더 수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자 신문이나 『Time타임』을 들춰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읽기의 공통점은, 내용 자체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단지 영어 공부란 명목으로 리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토막글들을 영어 공부란 명목으로 조금씩 읽어봐야 영어 실력을 쌓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원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영어 그 자체보다 '글과 읽는 이 사이의 궁합'이다. 즉, 반드시 그 원서를 읽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내가 잘 알면서도 당장 절실히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영문을 골라 읽는 데 너무 서툴다. 여러분이 요즘 읽고 있는 영문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영어 교과서,

학원 교재, 토익 문제집, 어려운 영자 신문이나 잡지들. 정말 즐기면서 읽고 있는가? 아니면 별로 재미없지만,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것이니까 그냥 읽고 있는가?

원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우리를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의 원서만 철저히 골라서 읽어야 한다. 5장의 What to Read의 원칙은,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원서를 찾고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습관 3: 영어 학습법만 찾아 헤매는 습관

우리 주위에서 영어 학습법 사냥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군가 영어 시트콤 보기를 추천하면 며칠간 <프렌즈>에 빠져 있고, 또 누군가 영어일기 쓰기가 좋다고 하면 다시 며칠간 영어일기에 매달린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누구누구 영어 성공기' 같은 영어 학습법들도 그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 습관에 빠지면 영어 학습법은 줄줄이 피고 있는데 정작 영어는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걸 나무라기만 할 수도 없다. 영어 학습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이었던 영어 학습법이 나한테는 별 효과 없이 시간 낭비로만 끝나버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학습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도 정작 영어 실력은 제자리걸음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시도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학습법의 결함이나 학습자의 끈기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학습자마다 판이하게 다른 '러닝 스타일(Learning Style)'**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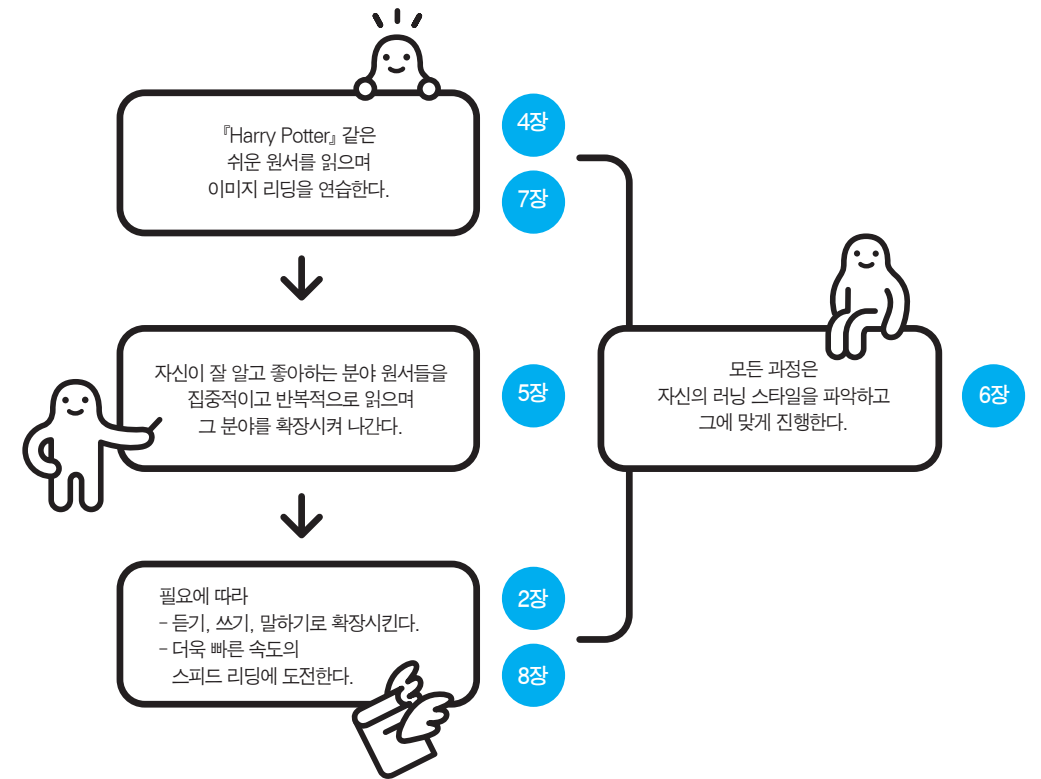
Learning Style이란 학습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이 전혀 다르며 자기에 맞는 러닝 스타일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공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러닝 스타일은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어 고수의 책을 읽고 무작정 따라 한다고 똑같은 효과를 얻기는 매우 힘들다. 그 사람과 당신은 러닝 스타일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러닝 스타일에 따라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6장 Learning Style의 원칙에서는 나의 러닝 스타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러닝 스타일에 따라 영어 공부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을 읽으면 왜 어떤 학습법은 효과 있는 반면 어떤 학습법은 효과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나에겐 어떤 공부방법이 효과적인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6장에서는 러닝 스타일이 스피드 리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자세히 다룬다.

스피드 리딩 훈련 로드맵

지금까지 영어 원서를 한글 책처럼 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방법으론 왜 원서 읽기가 힘들었는지 개괄적으로 다뤄보았다. 이제 다음 장부터 스피드 리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그 전체적인 훈련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 How to Read의 원칙, What to Read의 원칙, Learning Style의 원칙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자. 이 세 가지 원칙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서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당신도 머지않아 스피드 리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스피드 리딩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강조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스피드 리딩의 원칙과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적인 연습을 통해 스피드 리더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어떤 기술을 구사하는 방법을 알면 이미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기술을 아는 것과 실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고, 정작 중요한 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기술을 체득하는 것이다.

스피드 리딩이 현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고급 영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결코 노력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잘못된 습관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습관을 고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노력 없이 신기하게 영어가 해결되는 비법을 알려주지 못하며,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스피드 리더가 될 수

는 없다. 다만 이 책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는 이미 분당 150단어로 원서를 읽을 잠재력이 있고 또 그만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 역시 스피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